

염상섭 장편소설 「백구」의 정치 시학적 특성 고찰

김병구(숙명여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범죄 서사 형식의 이념과 민족 동일성 |
| 2. 사회주의 조직범죄의 문제화와 사회주의
이념 비판 | 회복 욕망의 아이러니 |
| | 4. 끝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식민지 시기 염상섭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들로 꼽히는 『사랑과 죄』, 『삼대』 및 『무화과』 연작의 공통적인 특징은 식민지적 상황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환기시키는 정치적 사건들을 허구화하여 그 사건들을 사회주의 조직의 지하 활동과 연루시킴으로써 서사적 긴장감을 자아내는 정치적 인유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치적 인유의 서사 전략을 통하여 염상섭은 사회주의 이념과 대화적 관계를 맺고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을 드러낼 수 있었다.¹⁾ 이런 맥락에서 『무화과』의 뒤를 이어 1932년 10월 31일부터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지원(연구과제 번호 1-1303-0042)에 의해 수행되었음.

1933년 6월 13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였던 『백구』는 염상섭의 민족주의 이념의 변곡점이 되는 작품이기에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화과』(『매일신보』, 1931, 11, 13~1932. 11. 12, 총329회)와 연재 기간이 12일이나 겹칠 만큼 연이어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백구』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보여준 작가 염상섭의 태도가 『무화과』의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사랑과 죄』, 『삼대』는 물론 『무화과』에서도 염상섭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식민지적 삶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이념으로 부각했다. 그런데 『백구』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활동은 갱단의 행위와 유비되고 있어 범죄 조직의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백구』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염상섭이 보여준 부정적인 태도는 그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해왔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정치 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문제성에도 불구하고 『백구』는 『사랑과 죄』, 『삼대』 및 『무화과』 연작에 드러난 염상섭 특유의 이념성이 퇴화한 징후를 보인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어 『이심』, 『모란꽃 필 때』, 『불연속선』 등과 함께 통속소설의 범주 안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무화과』와 더불어 20년대 감각으로 30년대의 심파사이즈를 다룸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어긋나 추상적인 상태로 떨어진 작품²⁾, ‘일제의 식민지임을 반성시키는 정치적인 식민지 의식조차 없음으로 인해 식민지적 위기의식과 저항적 활동이 『무화과』로서 끝나고 만 것을 입증한 작품³⁾, ‘외부 정세의 악화와 더불어 계급·민족 양과의 타협 노선을 주창하였던 황보의 정치 감각이 현실의 부하에 눌러 깨어져 나간 결과 식민지 시대 우리 소설이 달성한 최대의 성과의 하나인 『삼대』와 한날 통속에 흐르고 만 『모란꽃 필 때』의 중간점에 자리 잡은 작품⁴⁾, ‘사회주의자들의 타락을 문제

1) 염상섭은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서 1920년대 중반부터 계급문학 및 사회주의 계열 운동 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식민지 상황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과의 협력 및 대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중정’의 관점을 견지해왔다. 『민족·사회운동의 유심적 일고찰』(『조선일보』, 1927.1.1.~1.15)은 염상섭의 이와 같은 관점을 대표하는 논설인데,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 등은 이 논설에서 피력된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대표적인 장편소설들이다.

2)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598~599면.

3)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504~505면.

4) 유문선, 『이상과 희망, 자유와 평화 그리고 현실대응』, 『염상섭전집 5 백구』, 1987, 377면.

화함으로써 작가 염상섭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을 보여준 작품⁵⁾ 등, 논자마다 세부적인 논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백구』에 대한 기존 논의의 대부분은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해 온 민족주의 이념이 약화된 결과 본격적인 통속소설의 징후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물론 『삼대』 및 『무화과』 연작과의 서사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항일 독립 운동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자금을 제거하여 소설적·사회적 리얼리티를 보여준 작품⁶⁾, 도시 소설의 관점에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 대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실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서울 토박이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또 다른 현실적 리얼리즘을 추구한 작품⁷⁾, ‘식민 체제 내에서 식민지적 범죄가 양산되어 있는 일상화된 식민지적 위기의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주의가 일상화된 1930년 현실에 대한 염상섭 특유의 현실 감각을 보여준 작품⁸⁾ 등 『백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의들도 없지는 않지만, 염상섭 특유의 이념성 약화로 인해 한자 통속소설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백구』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사회주의 조직의 활동에 대한 염상섭의 부정적인 인식이 서사 전체를 압도한 나머지 『백구』 전반부의 연애 서사와 후반부의 범죄 서사 간 연결이 작위적이라는 점, 사회주의 조직의 활동을 ‘탐정적 흥미’의 대상으로 떨어뜨려 독자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백구』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관점을 수긍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점이 『백구』의 통속성을 염상섭 특유의 이념성 약화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염상섭이 ‘통속성’을 식민지 장편소설 창작의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⁹⁾, 이념성과 통속성을 상반적

5) 김학균, 『『삼대』 연작에 나타난 욕망의 모방적 성격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2, 2007, 193~195면.

6)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158~159면.

7) 김용희, 『근대 소설의 도시 공간』, 한신대학교, 2005, 321~323면.

8) 최주한, 『일상화된 식민주의와 <범죄>의 서사』, 『어문연구』 제31권 제4호, 2003, 285~287면.

9) 한기형은 염상섭 소설의 통속성을 식민지적 상황을 넘어서려는 서사전략의 산물로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염상섭 소설의 통속성이 식민지 사회에서 대중의 정서와 작가의 관점을

대립 범주로 보는 관점에서 『백구』를 평가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백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부정이 곧바로 염상섭 특유의 민족주의 이념의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본고는 기존 논의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정치 시학적 측면에서 염상섭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백구』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¹⁰⁾ 민족 동일성 회복을 회구하는 민족주의는 그 자체 완결적인 구조를 갖는 이념이 아니다. 항상 다른 사회 운동과 맞물려 그 내용을 채운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에 제약되어 변화해가는 이념이다.¹¹⁾ 이런 관점에 설 때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했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은 항상 동일한 모습을 띠는 게 아니라 식민 제국 일본에 맞선 저항 운동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죄』, 『삼대』 및 『무화과』 연작 등이 보여주는바, 염상섭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은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립적 긴장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 본고가 『백구』에서 염상섭 특유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발현되는 정치 시학적 특성을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의 변증법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서사방법으로 재래의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고, 서구적 모더니티에 대한 일방적인 경로를 차단하면서 식민지 현실을 재현하는 복합적 효과를 내장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다.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제82집, 185~194면 참조.

10) 필자는 「적색갱그 사건과 염상섭의 통속소설 『백구』」(『어문연구』159호, 2013)에서 ‘적색갱그 사건’이라고 명명된 일본 공산당의 정치적 스캔들과 『백구』 창작의 연관성을 발생론적 맥락에서 규명한 바 있다. 본고는 이 논문의 연장선상에서 『백구』의 내재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본고의 논의 전개를 위해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주를 통하여 인용 면수를 밝힐 것이다.

11)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민족의 실체는 사후적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접근할 때 민족이 지칭하는 실체보다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관점에 서면 민족주의는 민족에 선행하는 것이며 민족을 구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에 제약되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해가는 역사적 이념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에릭 홉스봄, 『강령서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24~26면.

12) 테리 이글턴(T. Eagleton)에 따르면, 개별 작품은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인식론적 구조란 특정한 세계 또는 특별한 주제를 재현하거나 묘사하기 위한 의도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정서적 구조는 작품에 재현된 세계가 조직되는 무의식적인 선택성과

2. 사회주의 조직 범죄의 문제화와 사회주의 이념 비판

염상섭은 장편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기 전 「작자의 말」을 통해 자신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곤 했다. 그래서 독자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작품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과 죄』, 『광분』, 『삼대』, 『무화과』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작품과 대비되어 ‘통속성’ 짙은 작품으로 평가되어 온 『이심』, 『백구』의 경우 독자가 사전에 창작 의도를 헤아릴 만한 어떤 단서도 남기질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 작품의 경우 「작자의 말」 형식을 빌어 집필 의도를 밝히지 않았는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 볼 점은 작가 염상섭이 『백구』에서 『사랑과 죄』, 『광분』, 『삼대』 및 『무화과』 연작과 달리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갱’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대』에서 사회주의자에 동조하는 ‘심퍼다이지’를 설정한 것을 두고 “자기의 애국사상과 이에 따르는 모든 행동을 좌익에 동조하는 길로 돌리어, 독립운동을 잠행적으로 실천하는 방법”¹³⁾의 일환이었다고 한 염상섭의 회고적 발언에 비추어 본다면, 『백구』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범죄 집단과 동일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곧 『백구』의 서사적 기획 의도가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는 데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과 죄』, 『삼대』 및 『무화과』 연작 등에서 염상섭이 사회주의자를 인식론적 지평의 한계를 표상하는 지평인물로 내세워서 그들을 식민지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환기시키는 실제 사건에 연루시켜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정치적 인유의 서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백구』의 기획 의도가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는 데 있다는 판단의 개연성을 반증해 준다. 특히 ‘윤리적·공리적 의의’를 강조한 염상섭의 소설 창작 원칙¹⁴⁾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작품

폐쇄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서적인 구조는 주체-정향적(subject-oriented)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 및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의 상대적인 일관성이나 입장을 확정하는 의지나 욕망의 산물로서 파악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작품의 표층에서 공공연하게 표명되는 인식론적인 구조는 그 심층의 정서적 구조에 종속되게 된다. T. Eagleton, "Ideology, Fiction, Narrative", *Social Text*, vol2 (1979 summer), pp. 62-64 참조.

13) 염상섭, 『황보문단회상기』, 『염상섭전집12』, 민음사, 1988, 237면.

14) 염상섭은 「조선과 문예」(『동아일보』, 1927. 4.10~17), 「소설과 민중」(『동아일보』, 1928. 5.27~6.3), 「통속·대중·탐정」(『매일신보』, 1934. 8.17~21) 등 일련의 비평적 글을 통해 통속소

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정체성의 혼란과 애욕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청춘 남녀의 연애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이들 청춘 남녀가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윤리적인 삶을 찾아나가는 데 매개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백구』의 경우 사회주의자 조직의 이야기가 청춘 남녀의 연애 이야기와 서로 맞물려 서사가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백구』 서사의 인식론적 지평의 한계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춘 남녀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나가는 데 매개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다. 『백구』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펼치는 조직 활동은 ‘갱단’의 범죄 행위에 비유되고 있어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될 따름이다. 그런 만큼 『백구』는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범죄 행위를 문제화하여 그들의 행위가 표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는 데 서사적 기획의 근원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백구』의 이와 같은 서사적 기획은 1932년 봄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결혼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는 소학교 교원 박영식과 백화점 여점원 원랑의 연애 이야기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이 ‘국제적’ 조직에 내야 할 분담금 마련을 위해 세운 ‘굉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범죄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구체화된다. 여기에서 ‘굉장한 계획’이란 금 밀수출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한 은행 과장 리형식의 돈을 강탈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주목해 볼 점은 매우 이질적인 두 이야기를 매개하는 것이 리형식의 돈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욕망이라는 사실이다. 리형식의 돈을 욕망하는 원랑 모친의 반대로 원랑과 박영식의 결혼이 좌절되어 원랑이 리형식과 원치 않은 결혼을 하는 것이 『백구』 전반부 서사의 기본 줄기를 이루고 있다면,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 조직이 원랑과 박영식을 끌어들여 분담금 마련을 위해 리형식의 부정한 돈을 탈취하고자 꾸민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후반부 서사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리형식의 돈은 두 개의 이질적인 서사를 연결해주는 매개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백구』의 서사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두 가지 중요한 역

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들 글에서 그는 ‘재미’의 요소 외에 ‘리얼리즘적 규율’과 더불어 ‘공리적·윤리적 의의’를 소설 창작의 선행적 조건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15) 출고, 『적색뺨그 사건과 염상섭의 통속소설 『백구』』, 『어문연구』159호, 2013, 216면 참조.

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리형식의 돈은 원랑의 원치 않는 ‘혼인사단’을 일으켜 박영식과 그녀의 연애 관계에 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처와 첩까지 든 40대의 중년 리형식에게 돈은 ‘현대미를 띤 동양 타입의 미인’ 원랑의 육체를 살 수 있는 수단이고 술주정뱅이 원랑 모친에게는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이다. 영식과 원랑의 연애 관계가 깨진 것은 리형식과 원랑 모친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에 의해 원랑의 육체가 거래된 결과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통속적인 연애담이 『백구』 서사 후반부에서 문제화되는 사회주의 조직의 ‘굉장한 계획’에 박영식이 연루되는 내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박영식이 ‘굉장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랑을 돈 때문에 리형식에게 빼앗긴 뒤, “요새 같이 침체한 기분에 쌓여서 진흙구성이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자기를 돌아다볼게,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해 보고 싶은 자극은 한층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¹⁶⁾는 그의 자의식이 말해주듯,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자 하는 그의 ‘침체된 기분’이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과 연루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리형식의 돈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적 조직’에 내야 할 ‘분담금’ 마련이라는 대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모와 협잡’을 동원해서라도 탈취해야만 할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박영식과 원랑을 ‘굉장한 계획’에 끌어들이는 내적 계기로 작용한다. 리형식의 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유경호의 사회주의 조직이 신봉하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는 탈취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대상이다. 문제는 그들이 리형식의 돈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리형식의 돈의 소재를 알고 쉽게 탈취하려면 리형식의 처 원랑과 박영식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사회주의 조직은 ‘굉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리형식의 돈은 원랑과 박영식의 연애 서사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서사로 수렴되도록 작용한다는 점에서 『백구』의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내적 원리가 되고 있다. 물론 『백구』 전반부의 연애 서사

16) 염상섭, 『염상섭전집5 백구』, 민음사, 1987, 206면.

가 부자의 돈에 팔려가는 가련한 여인의 운명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고, 후반 부가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서사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돈 때문에 사랑 하는 여인을 빼앗긴 남성의 복수극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백구』는 지극히 상투적이고 통속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복수극 형식을 차용한 『백구』 서사 후반부에서 박영식을 ‘굉장한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리형식에게 버림받은 첩 춘홍을 이용하는 것은 다분히 작위적인 상황 설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염상섭이 이와 같이 서사적 현실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통속적이고도 작위적인 방식으로 『백구』의 서사를 전개한 까닭은 무엇보다 사회주의 조직이 실행한 ‘굉장한 계획’의 범죄성을 문제화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표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이 펼치는 ‘굉장한 계획’의 범죄 이야기가 다른 한편으로 박영식이 그들에 의해 희생되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한 계획’의 범죄성이 사회주의 조직에 의해 희생되는 박영식의 시점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식이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그 나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굉장한 계획’을 박영식의 시점에서 문제화한 것은 염상섭의 의도적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박영식은, ‘K박사의 경제원론, L씨 번역의 자본론’을 구매하는 데 알 수 있듯이 ‘유행사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붉은 물이 들어보려는 것은 생념도 아니하는 것’이란 서술자의 말처럼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소학교 교원이란 ‘현재 지위에서 좀 더 나은 세속적 성공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소시민적 ‘인텔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조선에서는 전무후무한 보통학교 훈도들의 비밀결사가 탄로된 자유교육연구회 사건’을 보고 ‘그런 일의 효과나 의의를 떠나 자기의 무기력한 생활을 비추는 거울’로 의식하는 인물이기도 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박영식은 비록 ‘무기력한 인텔리’이지만, 사회주의 이념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민감한 정치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박영식의 ‘성벽’이 유경호로 하여금 ‘굉장한 계획’에 그를 끌어들이게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랑의 ‘혼인사단’이 벌어진 이후 유경호가

‘모던 걸’ 혜숙과 동료 교원 김경애 등 박영식 주변 인물을 동원하여 그를 ‘굉장한 계획’에 끌어들이려는 공작을 편 것이라든지, 리형식의 첩 춘홍을 이용하여 그와 새로운 연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것 등은 박영식이 ‘성벽’ 상 ‘굉장한 계획’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경호 나름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해 주는 상황설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염상섭은 이와 같이 『백구』 전반부의 연애 서사를 후반부의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서사로 수렴해가는 서사의 전개를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은 ‘창백한 인텔리’ 박영식의 희생을 부각하고, 그의 시점에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박영식이 ‘굉장한 계획’의 실체를 알기 전과 후 유경호에 대하여 보인 반응의 차이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박영식은 ‘유행사상’과 관련한 자신의 독서취향에 유경호가 공감을 나타내자 그에 대하여 일정한 호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경호와 함께 있던 혜숙이 반농담조의 일본말로 내뱉은 ‘僕タチハ、今素晴ラシイ計劃、實行ニ取リカ、ツテイマス先生モ-ツ参加シテ下サイマスカ(우리는 지금 굉장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참가해 주시겠습니까?)’란 말에 연연중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유경호의 입장에서는 박영식을 ‘굉장한 계획’에 포섭하려는 계산에서 그에게 관심을 표명한 것이지만, 유경호의 입원 소식을 전하면서 위문 요청을 하였다든 혜숙의 말을 듣고 그가 ‘굉장한 계획이란 말을 무심코 떠올리는 것’은 ‘굉장한 계획’의 내용을 알기 전 유경호에 대한 박영식의 태도가 부정적이지는 않았음을 말해주는데, 아래의 인용은 이런 박영식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라디오가 툭 터져나오자, 툭 짝어내놓는 듯한 거센 목소리가 방안으로 쏘다져 나온다. 『만주……만주, 세계의 승인물……』 엇저고 하는 소리가, 오늘의 뉴스인 모양이다. 『에그 싯그러워……』하고 혜숙이가 눈살을 찡흐르니까, 주인은 참아 말리지는 못해도 동감인 표정이다. 그러나 경호는 귀를 기우리고 안졌다. 그 다음에는 북만토비토벌의 전황(戰況)이 보도되었다. 또 그 다음에는 동경의 오월 십오일 사건 이후 립시의회가 언제쯤 열리리라는 보도다. 라디오가 끝나자, 경호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제-길할 밧게선 북적대는데 우리만 방 속에 들어안진 셈이다,』하고 장태식을 하더니 『박선생 그러치 안소? 갑갑하지 안하요?,』 하고 영식이를 치어다보니까, 영식이는 인사로 웃어만 보인다. 그러나

그 말만은 동감 아닌 것도 아닌 표정이다. 「당신가튼 이가 만주는 가면 무얼 하시랴우? 활동사진이나 백이다가 총부리에 채시랴우?」 춘홍이가 대신 대거리를 한다. 「만주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말이지...」¹⁷⁾

인용문은 A 병원에 입원한 유경호가 박영식과 친분을 쌓기 위해 마련한 마장 판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한 장면이다. 작가 염상섭은 여기에서 라디오라는 미디어 장치를 통해 ‘만주국 승인’, ‘북만토비토벌’, ‘동경의 오월 십오일 사건’ 등의 정보를 전하면서 간접적으로 급변하는 동시대의 정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식민 제국 일본이 본격적인 파시즘화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나타내주는 동시대의 상징적인 사건들이다.¹⁸⁾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은, 라디오 방송 보도가 철저하게 통제된 동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배자 언어로 표현된 ‘북만토비’란 만주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식민 제국 일본에 맞서 싸우는 항일 무장 세력을 지칭하는데, 유경호가 ‘북만토비’의 활동에 대하여 박영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에서 ‘밖에선 북적대는데 우리만 방속에 들어앉은 셈’이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작가 염상섭은 박영식이 ‘동감 아닌 것도 아닌 표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작가의 서술은 박영식이 급변하는 동시대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유경호의 경우는 ‘굉강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박영식이 동참할 수 있는지를 떠본 것이고, 박영식의 경우는 ‘자신의 무기력한 생활을 청산하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해 보고 싶은 자극’으로 동경 유학을 계획하고

17) 염상섭, 앞의 책, 223~224면.

18) 식민 제국 일본은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1931년 9.18 사변으로 야기된 만몽사태를 국제사회에서 만주국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932년 3월 1일 동북지역에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의 건국이 선포된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국제연맹에 제소를 하였는데 결국 만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경선, 「리튼조사단의 來滿과 만주국의 대외선전」, 『역사와 경계』 92, 2014 297~298면) 또한 ‘만주사변’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에 맞서 한중연합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민족주의 진영의 조선독립군과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무장 세력은 서로 대립적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적극 참여하였다. (황민호, 『재만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사학연구』 제114호, 2014, 193~194면)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사회의 우경화가 가속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1932년 5월 15일 현직 수상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가 현역 해군 장교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홍종도,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정세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2009, 80~85면 참조)

있다는 점에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동시대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하여 식민지민의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영식은 유경호가 말한 ‘굉장한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영식의 유경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정서는 ‘굉장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공포와 반감으로 급변하게 된다. 유경호 일당이 꾸민 ‘굉장한 계획’의 내용을 인지하고 난 뒤 박영식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반감을 드러내는데, 아래의 인용은 박영식의 반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해준다.

「…… 선생님의 책임문제라고 쓴 것은 좀 과한 말 갖기도 합니다만 저기서들은 벌써 선생님이 우리 통속이 된 줄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통이라면 무슨 불한당떼 가튼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인 줄 아실 줄 모르겠습니까만 결코 그런 위험한 것은 아니예요…(하략)…」¹⁹⁾

국제적이나 민족적이니 하고 무슨 큰 일이나 하는 듯이 풍을 치는 것 역시 연극이요, 실상은 저의는 뒤로 안져서 이 자를 내세워 가지고 영식을 춤을 추게 만들자는 계교 갖다. 이래서 안 되면 나중에는 춘홍이가 들고나서 정조유린이니 무어니 하고 또 위협도 하고 욕을 보이자는 것인지도 모를 것 같다. (자-, 그러나 이 놈년들이 <깡그> 단을 조직했단 말인가? 그러기로 혜숙이는 그런 불량소녀라 해도 놀랄 것 없지만, 여기 안짓는 요 김경애란 년까지 어느 틈에 그 놈년들 축에 싸여 다닐 줄 누가 알았드람! 나가만 봐라! 너부터 거두를 못하게 하고 경찰서에 말 한마디만 하면 한 그물에 걸리고 말리라……)²⁰⁾

첫 번째 인용문은 동료 교원이자 사회주의 조직의 구성원으로 박영식을 ‘굉장한 계획’에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김경애가 자신들의 활동 거점 A 병원으로 그를 유인한 뒤 그에게 ‘영원한 진리’를 위해 계획된 ‘일대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대목의 일부분이다. 두 번째 인용은 김경애와 행동 대원 최만석 등에 의해 A 병원에 억류된 상황에서 ‘굉장한 계획’을 듣고 신변의

19) 염상섭, 앞의 책, 282면.

20) 위의 책, 301면.

위협을 느낀 박영식의 심리적 반응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불한당떼 가튼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인 줄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이라는 김경애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경애의 이 말은 자신들의 사업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과 같은 ‘통속’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의 행위처럼 범죄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김경애의 발언에 대하여 박영식은 ‘남의 약점을 들어서 위협을 하고 돈을 뺏는 것이 남자일대의 큰 사업’일 수 없다는 생각을 내비치면서 ‘굉장한 계획’을 꾸며낸 유경호가 ‘주의자일 리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박영식은 유경호 ‘통속’을 ‘깡그단’으로 간주하며 격한 반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경애와 박영식은 ‘굉장한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굉장한 계획’을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의 행위에 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이란 ‘백구’의 연재를 시작하기 직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문제화되었던 ‘적색쌍그 사건’을 일으킨 일본 공산당 산하 조직원들을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점은 작가 염상섭이 『삼대』나 『무화과』 등의 작품에서 사회주의자들을 비유할 때 ‘불한당떼’와 같은 부정적인 수사를 구사하여 비유한 적은 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깡그단’과 같은 범죄 조직의 행위에 비유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자 조직을 범죄 집단에 비유한 것은 염상섭 장편소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인 셈이다. 특히 인용문에서 김경애의 입에서 나온 ‘요새의 은행습격의 깡그단’이란 표현은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환기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컨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들의 실체를 알게 된 뒤 박영식은 그들의 활동이 ‘영원한 진리’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모한 행동으로 인지되면서 그들의 행위를 ‘깡그단’의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 염상섭은 『백구』에서 ‘굉장한 계획’으로 표상되는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행위를 문제화하고,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굉장한 계획’에 연루되어 희생되어가는 ‘창백한 인텔리’ 박영식의 시점에서 사회주의 조직을 ‘깡그단’과 유사한 것으로 부각하고 있다. ‘굉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다 실패한

박영식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되는 것이 그가 ‘굉장한 계획’의 희생자임을 시사해 준다. 더욱이 박영식이 애초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백구』는 인식론적인 층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범죄성을 문제화함으로써 그것이 표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한계를 비판하고자 하는데 서사적 기획의 근원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범죄 서사 형식의 이념과 민족 동일성 회복 욕망의 아이러니

『백구』의 서사적 기획 의도가 사회주의 이념의 비판에 있다는 것은 『삼대』 및 『무화과』 연작과 관련하여 볼 때 정치 시학적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염상섭은 『삼대』와 『무화과』에서 조덕기, 이원영 등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심퍼다이어’를 내세워 사회주의 이념과 대화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삼대』의 김병화, 『무화과』의 김동국, 김봉익 등 사회주의자들이 펼치는 지하 활동은 식민 제국 일본에 맞서는 저항적 행위로 의미화될 수 있었다. 이경훈의 논의처럼 그들의 행위는 식민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이지만 민족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 놓인 피식민지자의 입장에서는 초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²¹⁾

물론 『백구』의 기획 의도와 관련하여 『삼대』나 『무화과』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제X차 공산당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 사회주의 조직의 실체가 분명한데 반해, 『백구』에서는 유경호가 중심이 된 조직의 실체가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 그것이 진짜 사회주의 조직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회주의를 빙자한 ‘갱단’인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경

21)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법의 문제를 논의한 이경훈에 따르면, 『삼대』의 ‘심퍼다이어’ 조덕기의 행위는 김병화의 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성 및 자율로 하여금 부재하는 민족 국가의 부재하는 합법성과 자율성을 선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초법에 동조하는 덕기의 합법성은 일본적 국가 이상의 그것이 아니라 부재하는 한국의 근대적 국가 이성에 대한 합법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합법성과 초법성은 상통하게 된다. 이경훈,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법의 문제-그 시론적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Vol2, 1998, 304면.

호가 중심이 된 조직의 이야기를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의 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작가 염상섭이 의도적으로 사회주의 조직과 관련된 ‘사업’과 사회주의 조직을 빙자한 갱단의 ‘협잡’이라는 상이한 범죄의 코드를 뒤섞은 결과²²⁾라고 보는 견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염상섭이 신문 매체에 보도된 스캔들 기사의 소설적 수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경호가 중심이 된 조직의 이야기를 『백구』의 연재가 시작될 무렵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 매체에서 ‘적색갱그 사건’이라고 명명된 일본 공산당의 정치적 스캔들을 원재료로 하여 서사적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보면 『백구』의 기획 의도가 사회주의 비판에 있다는 판단은 분명해질 수 있다. ‘적색갱그 사건’라는 명명 자체가 사회주의 조직과 ‘갱단’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거니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조직이 펼치는 ‘굉장한 계획’의 양상이 발상의 측면에서 당시 신문 매체에 보도된 ‘적색갱그 사건’의 기사 내용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²³⁾ 따라서 『백구』의 ‘굉장한 계획’을 발생론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색갱그 사건’의 소설적 변용의 관점에서 이해할 경우, 유경호가 중심이 된 조직은 사회주의 조직을 빙자한 범죄 조직이라기보다 오히려 ‘갱단’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사회주의 조직이라 볼 수 있다. 아래의 인용은 이런 판단의 개연성을 더욱 강화해 준다.

그런 일 필요 없죠. 차차 알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거 한아는 아라두서야 할 것이요. 이것은 누구의 사복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요. 리씨에게 사험이 있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요. 적어도 국제적 일이요. 전 조선 민족의 체면 문제란

22) 최주한, 앞의 글, 293~296면 참조.

23) ‘적색갱그 사건’이란 1932년 10월 6일 국제 공산주의 운동 조직 코민테른 산하 일본 공산당원들이 혁명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동경 소재 제백은행(第百銀行) 대산(大森)지점을 습격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동아일보』와 『매일신문』 등 국내 신문 매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하면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 사건은 사회주의자들이 일으킨 정치적 스캔들로 부상한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내 유력 신문들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할 까닭은 무엇보다 ‘스캔들’이라 할 만큼 미국식 ‘갱단’의 행위를 모방한 공산당 활동 방식의 충격적 양상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엄청난 정치적 파문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즉 이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공산당 및 사회주의 운동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범죄 집단을 모방한 수법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사회악의 이미지가 확산되어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참고, 앞의 글, 218~223면 참조.

말씀요. 알아 드겠습니까? 조선측의 책임액이 삼만 원인데 그 중에서 위선 이 달 말일까지 만 원 한아를 조달해 노하야 할 것이요. 만일 이걸 붓드러놓다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체면-아니 우리 전조선민족의 체면문제요, 우리는 거두도 못하고 발언권도 업게 될 것이요.²⁴⁾

인용문은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인물 최만석이 박영식에게 자신들의 ‘굉장한 계획’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면서 한 발언이다. 여기에서 최만석은 자신들의 계획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리형식에게 ‘사협’이 있어서 벌이는 일이 아니라 ‘국제적 전민족적 체면과 생명이 달린’ 차원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최만석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제적인 일’이 곧 국제적인 조직에 내야 할 ‘조선 측의 책임액’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적색 썩그 사건’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 조직 코민테른의 지시 하에 벌어진 사건이란 사실을 고려한다면, 최만석이 말한 ‘조선 측의 책임액’이란 코민테른이 ‘조선 측’에게 요구한 혁명 자금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백구』에서 유경호가 일본 동경에 있는 모종의 조직과 연락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그가 동경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추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이런 맥락에서도 유경호가 중심이 된 조직은 ‘갱단’의 범죄 수법을 흉내 낸 사회주의 조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백구』의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굉장한 계획’을 ‘적색썩그 사건’의 맥락을 고려하여 읽을 경우, 염상섭이 사회주의 조직의 ‘굉장한 계획’을 ‘갱단’의 범죄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그린 데에는 『삼대』 및 『무화과』에서 드러내었던 사회주의 이념과 대화적 관계 맺기를 포기한다는 정치적 전언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백구』 이후에 나온 『모란꽃 필 때』와 『불연속선』 등의 작품에서 사회주의자의 활동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백구』의 서사가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화적 관계 맺기의 포기라는 전언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백구』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삼대』 및 『무화과』 연작과 다르게 범죄 서사의 형식으로 담아낸 것은 『백구』의 기획 의도의 내적 요구에 따른 필연적인 결

24) 위의 책, 298면.

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백구』에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식민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삼대』나 『무화과』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행위 또한 범죄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삼대』나 『무화과』의 경우 사회주의자들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이 식민 제국 일본의 억압적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작품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범죄 행위는 식민 제국 일본의 통치에 대한 정치적 저항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형상이 식민 제국 일본의 통치 질서에 대한 반역자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백구』에서 그려지는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행위의 경우 식민 제국 일본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배제되고 있다. 그것은 박영식의 시점에서 한갓 ‘깡단’의 무자비한 범죄로 부각되고 있을 따름이다.

『백구』의 범죄 서사가 탐정 소설적 요소를 끌어들이며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흥미의 대상’으로 격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박영식을 끌어들이며 실행에 옮긴 ‘굉장한 계획’이 리형식의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실패로 돌아가자, 유경호의 직원들은 원랑의 자살극을 꾸며 리형식의 돈을 탈취하는 것으로 ‘굉장한 계획’은 급격히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백구』의 범죄 서사는 박영식과 춘홍의 실종 문제를 은연중 부각시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작가 염상섭은 계속의 오빠이며 박영식의 중학교 동창생 중호를 사설탐정 격으로 내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염상섭은 사설탐정 격의 인물 중호를 내세워 ‘굉장한 계획’ 사건을 ‘탐정적 흥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염상섭이 사설탐정 중호를 내세워 실종된 박영식과 춘홍의 행방을 추리해 가는 과정은 순전히 독자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삽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염상섭은 『통속·대중·탐정』(『매일신보』, 1934. 8. 17~8.21)이란 글에서 ‘대중독자층의 요구에 대하여 응급책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탐정소설이라고 하면서 탐정소설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²⁵⁾ 그리고 『백구』를 연재하던 때가 ‘탐정소설’이란 말이 ‘탐정/정탐’을 일상적인 흥미

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인 동시에 그 자체가 끊임없는 자극과 재미를 요구하는 대중에게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는 취미기호의 하나로 부상한 시기라는 사실²⁶⁾을 감안한다면, 염상섭이 『백구』에서 탐정 형식을 차용한 까닭은 말 그대로 ‘탐정적 흥미’를 매개로 독자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념해 볼 것은 독자 대중의 ‘흥미’를 자아내고자 하는 목적과 달리 『백구』의 범죄 서사가 차용한 탐정 소설적 요소에 작가 염상섭이 의도하지 않은 이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염상섭은 탐정소설을 대중소설, 통속소설과 구분하면서 그 특징을 ‘범죄를 주제로 한다’는 것, ‘범죄 위에서 출발하므로 아무리 범죄가 다종다양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단순한 범주에 제한되어 유형적(類型的)에 함(陷)한다는 것’, ‘서양에서 발달되어 건너온 것으로 과학적 기초 위에 선 것’ 등²⁷⁾을 들고 있다. 탐정소설에 대한 매우 소박한 견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백구』의 범죄 서사에 함축된 이념적 함의를 읽어내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탐정소설의 이 세 가지 특징 중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과학적 기초’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과학적 기초’란 곧 탐정이 범죄자를 추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염상섭은 탐정 소설의 핵심을 범죄 자체가 아니라 범죄자를 찾아내는 추리로 보고 있다. 즉 그는 ‘범죄를 주제로 하’지만 이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추리하는 ‘과학성’에 탐정소설의 본질이 있다고 본 것이다. 탐정소설에 대한 이와 같은 염상섭의 견해를 고려할 때, 비록 『백구』의 범죄 서사에서 범죄자를 추리하는 과학적 요소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 범죄 서사의 초점이 박영식과 춘홍의 실종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설탐정 격으로 등장하는 중호가 박영식의 행방을 둘러싸고 원랑과 나눈 아래의 대화는 『백구』의 범죄 서사 형식에 내포

25) 염상섭, 『통속·대중·탐정』(『매일신보』, 1934. 8. 17~8.21), 『염상섭 문장 전집 II』, 소명출판, 2013, 393면.

26) 김지영,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 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제 43집, 2010, 100면

27) 염상섭, 앞의 글, 394면.

된 이념적 함의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중호는 협박장을 한번 죽 읽고 나더니 「박군이 <린디> 제 이세쯤 되었군! 허허……조선사람들 이십세기에 살겠다-33년생으로 진급(進級)을 하얏스니까……하하, 하……」고 커다라케 웃어 버린다. 미국의 비행대좌 린디의 아들이 <갱>에게 잡혀간 것을 중호는 생각한 것이다. …(중략)… 영식이가 곤경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는 서두는 것이 조켓기는 하나, 중호가 뒤배를 보아준다 하더라도 그자들과 접근할 것이 아무래도 무서운 것이다. 「모른 척해도 또 무어라고든지 편지가 오기야 하겠지만, 예서 갖가지 가는 눈치를 보여야 되레 정체를 붓잡기가 쉬웁겠지, 「정체는 알아 무얼 해요. 박선생만 빼냈으면 고만이지, 「허나 박선생이 정말 붓들려가서 감금을 당하고 있는지 박선생께서도 한통속이거나, 갱 단장이신지 누가 알 일인가. 어쨌든 박선생 목숨이 걱정 될 일은 없겠지²⁸⁾

여기에서 중호는 박영식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실을 알고 먼저 <린디> 제 이세의 실종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미국의 비행대좌’ <린디> 제 이세 납치 사건은 1932년 3월 1일 이른바 ‘세계의 항공왕’이라 일컬어졌던 ‘린디’ 부부의 두 살 된 아들이 의문의 납치를 당한 유괴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32년 3월 『매일신보』에 3회에 걸쳐 사건의 추이가 보도될 만큼 당시 신문 매체를 통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 이유는 ‘린디’ 부부의 명성 외에도 ‘린디 제 이세’가 감쪽같이 사라져 암흑가 ‘갱’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으로 기사화되었기 때문이다.²⁹⁾ 주목할 점은 작가 염상섭이 사설탐정 격인 중호의 시점에서 은연중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사건을 세간의 이목을 끈 ‘갱단’의 유괴 사건에 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한 계획’ 사건 내부에서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갱단’의 범죄로 바라보았던 박영식과 마찬가지로, 사설탐정 중호의 눈으로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흥미의 대상’이 되었던 ‘린디’ 부부의 아들 유괴 사건에 박영식과 춘홍의 실종 사건을 견준으로

28) 위의 책, 327~328면.

29) 이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린디-」大佐의第二世를誘拐, 犯人은 전혀 不明>(『매일신보』, 1932. 3.4), <二十五萬弗로誘拐者와交渉, 경찰의 힘은 빌지 안기로 悲嘆中의린디-夫妻>(『매일신보』, 1932. 3. 5), <五里霧中의第二世「린디」>(1932. 3. 25)

쨌, ‘굉강한 계획’ 사건 외부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조직을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깁단’과 같은 사회악의 표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구』의 서사는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탐정 형식에 포섭하는 봉쇄 전략³⁰⁾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행위가 갖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제거하여 그것을 단순히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사회주의 조직을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한 세력으로 철저하게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탐정에 의한 추리 형식 자체가 범죄에서 사회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범죄가 일어나게 된 맥락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무자비한 범죄자로 간주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작가 염상섭이 『백구』에서 탐정 형식을 차용하여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문제화한 것은 의도치 않게 사회주의 조직이 맞서고자 한 식민 제국 일본의 지배 질서를 승인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³¹⁾

물론 작가 염상섭이 탐정 형식을 차용하여 유허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성을 부각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염상섭 특유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약화되고 식민 제국의 일본의 지배 질서를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현존하는 식민 제국 일본의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성을 ‘탐정적 흥미’의 대상으로 부각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화적 관계 맺기를 포기할 때 식민지 시기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30) 봉쇄전략은 이데올로기의 기본전략으로 서사의 경계를 설정하고 배제와 조작을 행하여 자신의 관심이나 사상을 자연적이며 전체적인 것으로 개연성 있게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외부라든지 타자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곧 봉쇄전략인 것이다. 봉쇄전략은 재현의 대상이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대상이 일체의 사회적, 역사적 관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기능을 한다. Jameson, Fred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p. 49~55.

31) 이와 관련하여 에른스트 만넬이 범죄소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통속문학에서 범죄소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운명’, 폭력에 대한 열정, 범죄의 불가피성에 대한 통찰을 기존 사회 질서의 옹호와 변명에 이용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객관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반역이 개인화되는 것이다. 반역자는 이제 그 사회적 의미를 잃은 채 도둑이나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을 범죄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러한 공격 자체를 사유재산에 대한 찬성으로 뒤바꿔놓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에른스트 만넬, 이동연 역,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26면.

추동해 온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은 의도치 않게 식민 제국의 욕망과 서로 공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그 자체 내에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백구』의 범죄 서사는 정서적 구조의 층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타민족의 지배를 근절하기 위해 민족 동일성을 추구하지만 이런 민족주의가 추구하는 동일성이란 근본적으로 식민주의적 억압자가 구성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 역설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²⁾ 이것이 『백구』의 범죄 서사에 내재된 염상섭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의 양상이 『삼대』나 『무화과』의 그것과 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치 시학적 특성인 것이다.

4. 끝맺는 말

염상섭은 식민 제국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식민지민의 운명과 그와 같은 정체성의 위기를 낳은 식민지적 삶의 조건의 극복 가능성을 작가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문해왔던 작가였다. 『사랑과 죄』, 『광분』, 『삼대』, 『무화과』 등의 장편소설은 이와 같은 식민지 시기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들로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근대 소설사에서 의미 있는 성취로 인정받아 왔다. 염상섭이 이런 소설적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인유의 서사전략을 통해 자신의 이념적 지향성과 대립적 긴장 관계에 놓여 있던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화적 관계를 맺고 식민지 상황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폭넓은 시야에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화과』의 뒤를 이어 연재한 『백구』에서 염상섭은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적 활동을 ‘갱단’의 범죄 행위에 견주어 서사화함으로써 『무화과』는 물론 『삼대』, 『사랑과 죄』와 달리 사회주의 이념에 대하여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는 『백구』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문제적 성격에 주목하여 식민지 시기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했던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백구』에서 발현되는 정

32) 테리 이글턴 외 2인, 김준환 역,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인간사랑, 2011, 20~24면 참조

치 시학적 특성을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연관 속에서 밝히고자 했다. 본고의 논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백구』는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과 거리를 두고 있는 소시민적 지식인 박영식의 시점으로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펼치는 이른바 ‘굉장한 계획’의 범죄성을 서사적 탐색의 대상으로 문제화하고 있다. 이는 박영식이 사회주의 조직의 ‘굉장한 계획’에 연루되어 희생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작가 염상섭은 박영식의 시점을 매개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펼치는 행위를 ‘깡그단’의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자 조직의 행위가 표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둘째, 『백구』는 정서적 구조의 층위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대화적 관계 맺기의 포기라는 정치적 전언을 내포하고 있다. 염상섭은 『백구』의 범죄 서사에서 ‘굉장한 계획’의 희생자 박영식의 실종을 문제화함으로써 ‘굉장한 계획’ 사건 외부에 있는 사설탐정 격인 인물 중호를 내세워 유경호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다시 한 번 ‘깡그단’의 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백구』의 범죄 서사는 탐정 형식을 차용하여 그 속에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를 포섭하는 전략을 통하여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행위가 갖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아냄과 동시에 사회주의 조직을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철저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구』의 범죄 서사는 정서적 구조의 층위에서 역설적이게도 식민 제국 일본의 지배질서를 승인하는 아이러니를 함축하게 된다.

작가 염상섭이 『백구』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였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그가 식민 제국의 일본의 지배 질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백구』의 범죄 서사에 내재된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화적 관계 맺기의 포기라는 전언은 작가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해 온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의도치 않게 식민 제국의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 아이러니를 그 자체 내에 내포할 수 있다는 정치 시학적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매일신보』

『염상섭전집 5 백구』, 민음사, 1987.

『염상섭전집12』, 민음사, 1987.

『염상섭 문장 전집』I·II, 소명출판, 2013.

2. 2차 자료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김병구, 「적색뺨그 사건과 염상섭의 통속소설 『백구』」, 『어문연구』159호, 2013.

김용희, 『근대 소설의 도시 공간』, 한신대학교, 2005.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김지영,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 과정」, 『현대문학 이론연구』제41집, 2010.

김학균, 「『삼대』 연작에 나타난 욕망의 모방적 성격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22, 2007.

에른스트 만델, 이동연 역,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에릭 홉스봄,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비평사, 1994.

유문선, 「이상과 희망, 자유와 평화 그리고 현실대응」, 『염상섭전집 5 백구』, 1987.

이경훈, 「염상섭 문학에 나타난 법의 문제-그 시론적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Vol2, 1998.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504~505면.

전경선, 「리튼조사단의 來滿과 만주국의 대외선전」, 『역사와 경계』 92, 2014.

최주한, 「일상화된 식민주의와 <범죄>의 서사」, 『어문연구』제31권 제4호, 2003.

- 테리 이글턴 외 2인, 김준환 역, 『민족주의, 식민주의, 문학』, 인간사랑, 2011.
- 한기형, 「노블과 식민지-염상섭 소설의 통속과 반통속」, 『대동문화연구』 제82집, 2013.
- 홍중도, 「1930년대 『동아일보』의 국제정세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2009.
- 황민호, 「재만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사학연구』 제 114호, 2014.
- Eagleton, Terry. "Ideology, Fiction, Narrative", *Social Text*, Vol2, 1979 summer.
- Jameson, Fred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국문초록】

본고는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백구』에서 발현되는 정치 시학적 특성을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연관 속에서 밝히고자 했다. 『백구』는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소시민적 지식인 박영식의 시점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펼치는 ‘굉장한 계획’의 범죄성을 문제화하고 있다. 염상섭은 박영식의 시점을 매개로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펼치는 행위를 ‘갱단’의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구』는 정서적 구조의 층위에서 사회주의 이념과의 대화적 관계의 포기라는 전언을 내포하고 있다. 『백구』의 범죄 서사는 탐정 형식을 차용하여 사회주의 조직의 범죄 행위가 갖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아냄과 동시에 사회주의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백구』의 범죄 서사는 염상섭의 작가적 실천을 추동해 온 민족 동일성 회복의 서사적 욕망이 의도치 않게 식민 제국의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 아이러니를 그 자체 내에 내포할 수 있다는 정치 시학적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백구, 민족 동일성, 인식론적 구조, 정서적 구조, 정치 시학, 범죄서사, 사회주의 이념, 탐정 형식

【Abstracts】

A Study on Politics of White Dove(白鷗) of Yeom, Sang Seop

Kim, Byeong Gu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s the way how Yeom Sang Seop's narrative desire to revive national identity in White Dove is revealed in the dialectic relation between a cognitive structure and a emotive structure of text. First, White Dove reveals the criminality of the so-called 'Amazing Plan', which is misbehaved by socialist organization, from Petit intellectuals, Park Young Sik' poin of view at the level of cognitive structure. Yeom Sang Seop openly criticize the socialist ideology by analogy the behavior of the socialist organization a crime gang. Second, White Dove implies a message that the abandonment of the socialist ideology and dialogical relationshipat the level of emotive structure. The crime narrative in White Dove removes the historical and social meaning to borrow a detective form with the criminal acts of socialist organization, and brings the interest of the reader at the same time lay the ideological effect that need to isolate the socialist organization. In this respect, the crime narrative in White Dove has a political implications that Yeom Sang Seop's narrative desire to revive national identity could pose an irony that unintentionally can be associated with the desire of the colonial empire.

Key words : White Dove, national identity, cognitive structure, emotive structure, politics, crim narrative, socialism, detective form

이 논문은 2014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2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